

## <세션2 - 글로벌 ESG 동향과 동남권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전략>

이승수 | PwC 컨설팅 컨설턴트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국가 제조·물류의 핵심 거점이다. 2024년 부산항은 컨테이너 2,440만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로 세계 7위 허브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울산은 2024년 수출 비중 약 12.9%로 전국 3위 권역이며, 현대차 울산공장은 연 150만 대 규모의 세계 최대 단일 자동차 공장, SK에너지 울산컴플렉스는 정유 능력 84만 bpd(barrels per day)의 제조 거점이다. 또한 전 세계 조선 Big 3 조선소가 모두 동남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내를 대표하는 동남권의 주요 기업은 수많은 협력사들과 함께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경영 트렌드의 핵심 요소인 규제·공시 환경은 ‘공급망 실사형 ESG’로 수렴하고 있다. 2023년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IFRS S1(일반 요구사항)·S2(기후 관련 공시)를 공식 발표했으며, 한국은 이를 국내 기준으로 채택·정합화를 공식화했다. EU는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ESRS(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CSDDD(기업공급망 실사지침)을 개정 논의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준비할 수 있는 내재화 기간을 고려하고 있으나, 큰 틀에서 ESG 관점의 공급망 관리 중요성 원칙은 변함이 없다. 특히 EU의 CBAM으로 인해 2026년부터 비용 부담이 본격화되어 철강·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 품목의 내재 배출 데이터 품질이 가격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산업별 글로벌 고객사의 요구는 더 빠르다. 전자·ICT 밸류체인의 핵심 발주처들은 공급망 100% 재생전력 전환 및 배출 보고를 계약 조건으로 편입하는 추세다. 애플(Apple)은 2030년까지 전 세계 공급망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며 직접 제조 지출의 약 95% 이상을 커버하는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자동차·기계는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으로 인해 1·2·3차 협력사까지 인권·환경 실사 증빙을 요구하며, 대미 수출 기업은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으로 특정 원재료·지역 리스크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이로 인해 ESG 관점의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은 단순 ‘보고서 작성’에서 데이터 기반 리스크·성과 관리로 급격히 확대하고 있다. 공급망 탄소·인권·안전 데이터가 실사·구매·가격에 연동되는 구조에서 Tier 1 기업의 그린워싱 리스크는 자사의 ESG 데이터뿐 아니라 공급망, 즉 중소·중견기업 협력사의 데이터 부정확성이 주요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Tier 1 기업의 Scope 3 및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값이 주요 ESG 공시 항목으로 자리 잡아 가면서 원청사는 자사뿐 아니라 공급망의 검증 가능한 데이터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문제는 동남권의 기업 구조다. 국내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기업 수 99.9%, 고용 80.4%를 차지하고,

지역별로도 부산 47.6만 개, 울산 13.7만 개, 경남 46.9만 개 수준으로 중견·중소 중심 생태계다. 더구나 동남권은 2024년 광공업 생산 2.9% 증가와 함께 품목별 변동성이 커져, 시즌·환적·정기보수 등 운영 현황을 반영한 월·분기 단위 데이터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정확한 공시가 필수적인 현 상황에서 기업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남권 기업들은 시스템 기반 ESG 데이터 측정 및 공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비용 지출 부담 및 탄소, 인권 등 주요 ESG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고급 인력 수급에 어려움은 대다수 중견·중소 기업의 누적된 어려움이다. 그러나, ESG 경영 전환이 필수적인 현 상황에서 동남권 기업들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ESG 관련 국책지원사업과 원청사와의 적극적인 상생 협력을 통해 역할·책임·검증(3LoD)을 명확히 한 ESG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제품·공장 단위 ESG 데이터 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역량을 내재화해야 한다. 탄소 관리 관점에서는 현재 수기 또는 단순 스프레드시트 산정 체계로 인한 부정확성 리스크가 상존하는 데이터 생산 체계에서 경량 SaaS(Software as a Service)형 계정·공시 시스템 전환을 통해 비용 대비 높은 경영 효익과 데이터 품질·일관성을 제고해야 한다. 정확한 공급망 ESG 데이터 경쟁력은 동남권 주력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핵심 요소이다. 시스템 기반의 정확한 ESG 데이터 생산 및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향후 비용 절감 및 수주 경쟁력 리스크관리 강화가 필요하다.